

■ 포레스트북스 출판사의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 광고 게재 비판 보도자료 (2019.7.5)

# ‘아이의 공부머리가 5~10세에 결정’ 된다는,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신문 광고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 지난 2019년 7월 3일자 모 일간지 3면에 종이접기 관련 도서 판매 출판사 ‘포레스트북스’는 “아이의 공부머리는 5~10세 때 결정된다!”는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를 실음.
- ▲ 그러나 이와 관련 국내 전문가들 및 국제 연구 자료(OECD 뇌 과학 보고서)는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없다, △‘학습을 의도한 놀이는 오히려 역효과’라는 밝히고 있음.
- ▲ 따라서 위의 광고 문구는 부정확한 정보로써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허위과장 광고의 소지가 있으며, 이런 불안감 조장 공포 마케팅은 즉각 중단해야 함.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와 관련 해당 출판사에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임.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짓 과장 정보를 판별하며 올바른 영유아 (사)교육 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심해요, 육아!” 정보 소책자를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중.

2019년 7월 3일자 모 일간지 3면 광고에 ‘포레스트북스’ 출판사가 “아이의 공부머리는 5~10세 때 결정된다!”는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노규식 박사와 영국 초등 교사 출신이자 교재의 저자인 룩 아이브스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아이들의 두뇌는 시기마다 결정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에 흥미를 잃는 아이와 학습을 즐거워하는 아이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이는 10세 이전에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뇌근육과 공부 습관이 발달하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뇌 발달을 위해 특정 시기를 놓치면 큰 일 날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광고의 헤드라인을 “아이들 공부머리가 5~10세에 결정된다”라고 하여, 그 전문가들도 발언하지 않은 ‘결정 된다’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음으로 극단적 공포 마케팅 광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아이의 공부머리는 5~10세 때 결정된다!”

★★★★★  
“아이들의 두뇌는 시기마다 결정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한 단계씩 순서대로 접는 과정이 중요한 종이접기는 논리적 사고의 출발이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놀이입니다.”  
\_ 국내 최고의 두뇌교육 전문가, SBS <영재발굴단> 노규식 박사 강력 추천



▶ 아이를 위한 2만여 교육  
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시작  
됩니다. 아이에게 유용한 놀  
이면서 다양한 교육적 효  
과를 볼 수 있는 종이접기  
영국 초등학교에서 종이접  
기수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  
“아이의 두뇌는 형성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합니다. 종이 접기는 특별한 아이로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두뇌 자극법입니다.”  
\_ 50만 엄마들의 선택 (차이의 놀이) 교육팀 김성호 강력 추천  
★★★★★  
공명, 동물, 우주선, 발칙 공 등 아이가 좋아하

는 것들로 가득 채워 재미있어해요. 아이가 즐겁게 노는 동안 저절로 교육적 효과까지 주니 부모도 대만족입니다. 색종이와 스티커까지 들어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정말 좋아요.  
\_ 독자 리뷰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아이 vs 지겨워하는 아이 결정적 차이는 뭘까?’**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이 시작되는 나이, 이때 아이들은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아이 vs 지겨워하는 아이’로 나뉩니다. 이 아이기를 시작하면 흔하디 흔한 ‘한국은 교육 지도가 잘못됐어요’라고 쉽게 단정하는데 이는 비단 한국 교실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뇌 발달과 학습 능력을 연구하고 있는 영국의 톰 아이브스 선생님. 그는 영국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인 터키엔 종이 있었다. 초등학교에 막

들어온 아이들은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자꾸 떨어진다. 무엇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에 흥미를 잃는 아이와 여전히 학습을 즐겨워하는 아이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부 준비운동**  
그것은 바로 ‘공부머리’였다. 공부머리는 공부의 준비운동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은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 10세 이전에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뇌 근육과 공부 습관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대해 수십 년간 고민한 톰 아이브스 선생님은 ‘놀라운 과학 실험들 (Amazing Science Experiments)’, 시리즈를 통해 영국 어린이들에게 국민 선생님이로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아이들의 흥미

를 떨어뜨리지 않고 동시에 뇌 발달과 학습 능력을 돕는 놀이로 종이접기만 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체적인 모양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명소에 쓰지 않는 소근육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게 해 준다. 특히 학습이 시작될 때 아이들은 실재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되는데, 종이접기는 물리고 새로 접고 하는 과정을 통해 ‘실패=좌절이 아닌’ 실패=다시 도전이라는 사고방식을 무의식중에 습득하게 하며, 집중력, 승부욕, 상상력, 자율성 등 정말 많은 교육적 효과로 영국 초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방식 중 하나다.  
특히 종이접기 하나로 아직 완성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기에 도전, 성공 스티커를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단계별로 작은 부록을 주는 등 다양한 교육적 장치에 학부모의 많은 공감

을 얻었다. 아이를 위한 진짜 교육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시작된다. 문의 070-770-5880



출판사: 아이브스 지음 | 12,000원 | 푸른책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반화할 수 없는 가설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뇌과학 신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2007년 OECD가 발표한 <뇌에 관한 여덟가지 신화> 보고서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 결정적 시기가 있다.’, ‘3세 무렵에 뇌의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등 조기 교육의 근거로 신봉되는 가설들은 잘못된 신화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뇌 과학 전문가 신성욱 과학저널리스트도 신경망 최소 단위인 시냅스는 영유아 시기에 가설공사처럼 임시로 수많은 연결을 해놓고 이후 가지치기를 계속해 나가다가, 드디어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이르러 가장 딱딱한 뇌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도 외국어 습득에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결정적 시기 가설’도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며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 기관과 교재·교구 업체에서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며 홍보하며 상품을 판매하지만, 90년대 이후의 새로운 뇌 과학 이론에 따르면 이는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학원, 문화센터, 교재·교구 등 많은 교육업체의 ‘놀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학습의 결과도 좋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 속에는 일정한 학업 성취 목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광고 역시 ‘뇌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해당 교재를 활용하여 놀이’하라는 전형적인 방식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에 ‘학습’이라는 의도와 목적이 붙는 순간, 아이들은 그것을 놀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한 효과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 “재미로 책을 읽어야 언어 발달에 도움 돼”

김숙령·육길나(2007) <어머니와 유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현황 및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과 유아의 언어표현력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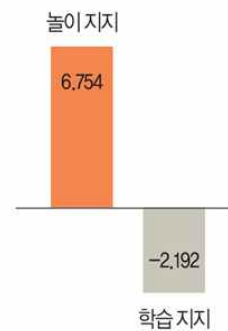
자녀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의 언어 발달이 오히려 평균 이상으로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학습이나 두뇌 발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 순간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숙령·육길나(2007)의 연구를 보면 자녀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의 언어 발달이 평균 점수 이상으로 촉진되었으며, 자녀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책을 읽어줄 때는 유아 표현력이 평균 이하의 결과로 검사되었습니다. 학습이나 두뇌 발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 순간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것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 “놀이를 부모가 지지할수록 아이들 정서와 자아가 건강해져”

2015, 최은정 등,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가 놀이를 ‘학습’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 자체를 중요하게 볼 때,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학습이 아닌 놀이의 가치를 알고 유아의 놀이를 지지해주세요.



최은정(2015) 등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놀이를 ‘학습’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 자체를 중요하게 볼 때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오히려 학습 의도로 놀이를 할 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이를 통한 성장은, 아이들이 활동을 주도하면서 놀이 이외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즐거움을 누릴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해당 광고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부정확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함으로써 자녀 교육에 대한 조바심을 부추기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의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입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이와 같은 방식의 홍보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출판사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해당 광고를 또 다시 게재하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입니다. 언론도 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잘못된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강하고 정확한 교육 정보가 유통·확산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거 없는 과장 광고나 거짓 정보로 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영유아(사)교육 상품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심해요 육아” 소책자를 전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찾아보기→noworry.kr)

영유아 교육 전문가 29인이 밝혀낸  
잘못된 영유아 사교육 정보 12가지

# 안심해요, 육아!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선미, 학부모  
 김 씨장을 물어보니 사교육 업체들 권유 때문에 사들인 전집들이 꽤 되네요. 영미안 저에게 불안이 있었고 속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락소리로 얘기해주는 용모가 진작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영유아 사교육 업체들의 실적 평가에 일조하지 않고 가성비 좋은 육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만나 참 다행이에요.

**“가드너 박사의 실덕력 있는 근거에 마음이 놓여요.”** 김지연, 학부모  
 아이를 키우면서 뭐라도 시키야 하지 않나 조바심이 들면 참이었어요. 영어 조기교육, 수학 연산, 놀이교육... 이렇게 하나씩 더해일하게 정해진 정보들이 든든하네요. 특히 다중자녀어른 창시자 가드너 같은 전문가들의 실덕력 있는 근거들에 마음이 놓입니다. 지금껏 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초1 한글 시간이 늘어났다는 말은 처음 들어요.”** 김민정, 학부모  
 초등 입학 전 학부모들이 많이 염려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유익했어요. 한글, 수학, 영어 조기교육 같은 영유아 부모들이 고심하는 문제들에 시원한 답을 주어서 좋았어요. 더욱이 2017년부터 초등학교에서 한글과 수학 수업이 시간이 늘거나 내용이 심화했다는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지인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말이 드네요.

**“유튜브에서 ‘안심해요, 육아’를 찾아보세요.”**

(안심해요, 육아) 소책자를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세요? 유튜브에서 ‘안심해요, 육아’를 찾아보세요. 유튜브 키워드(noworry.kr)의 사교육 관련인 심층소책자도 50편의 심도 있는 가이드입니다.  
[www.noworry.kr](http://www.noworry.kr) (검색창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을 검색하세요.)

이 소책자 외에도 사교육의 이해와 진심을 알리는 (01)답다 책(02)3), 영어와 수학 사교육 심상을 알리는 (04)얼마나 영어 듣고(05), (07)영어, 수오자, 한글 등 보를 알려주는 (08)29가지 소책자도 있습니다.

공통대표 송인수, 윤지희 |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42길 22-102(한남4동) 4층  
[www.noworry.kr](http://www.noworry.kr) | T. 02-797-4044 F. 02-797-4854 E-mail. noworry@noworry.kr

2019. 7. 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 (02-797-4044, 내선 512)
-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 511)
-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 내선 506)